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6



▶한줄요약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인도 현지에서 천추사원 금어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탱화를 그리던 금어는 언제부턴가 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암자의 화재로 죽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 것이다.

성물을 찾아 떠난 금어의 아들

성물을 찾아서 ②

내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다.

그가 고개를 내저었다.

-취재 핑계를 대고 그 성물이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푸른 보자기가 덮인 석관만 얼핏 본 적은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자고 보채지 못하겠더군요. 석관을 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나는 조금 실망스럽게 되뇌었다.

-성물이 사라졌다는데…?

내 물음에 오오스마 기자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관심을 가지니까 인도 정부에서 헛소리를 퍼뜨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겠지, 싶었다.

-그 성물의 유무를 취재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황당하기도 하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그곳으로 가봐야 하나 생각 중이었는데….

-늘 기별을 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종정 예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인연이 되었는데 늘 마음속으로 모시고 있지요.

-그렇군요.

-어이 심 작가!

입구 쪽으로 눈길을 주던 오오스마 기자가 누군가를 불렀다.

입구로 들어서던 사내가 오오스마 기자를 발견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오오스마 기자가 손짓했다. 이곳으로 오라는 손짓이었다.

사내가 다가오는 사이 오오스마 기자가 나를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소설 쓰는 사람입니다. 심기윤이라고….

심기윤? 역시 한국 사람?

사내가 앞으로 와 섰다. 삼십 대의 한국 사람이 맞았다. 머리를 길러 뒤로 묶었는데 얼굴이 동글고 코가 우뚝했다. 키가 작달막한데 눈빛이 맑고 하관이 빠졌다. 몇 가닥 이마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때문인지 이마의 음영이 묘했다.

-늦었군.

오오스마 기자가 사내를 보며 말했다.

-음. 어딜 좀 들렀다 오느라….

우리를 살펴보며 사내가 말했다. 둥근 얼굴만큼이나 음성에 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하게. 한국에서 오신 기자분들이네.

오오스마 기자의 말에 사내가 나를 보더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심기윤입니다.

-이주석입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에서 대필 작가 노릇이나 하다가 인도에 여행과 오오스마 기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이 되지 않아 방황하던 중에 오오스마 기자의 권유로 인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었다.

-벌써 8년이 넘어가네요. 이곳에서 뭐 하나 건지려고 버둥거리다 보니 이곳 사람이 다 됐습니다.

넷이 차나 하자며 들어간 거리 찻집에서의 대화였다. 그 후 여러 말들을 나누었다. 돌아오면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게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이었다. 편안해질 이유가 없는데 편안해진다는 게 이상했다.

심기윤이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있다기에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그 성물을 보았습니까?

그 역시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소설화하려고 생각하셨는지…?

비록 대필 작가를 하고 있었지만, 소설을 놓을 수가 없어 소재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



는데 이번 사건과 만났다고 했다. 그전에는 대필하면서도 고독과 숙명의 삶이 교차하는 현대인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뜻대로 되질 않아 절망스러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작가에게 있어 평범한 일상은 죄악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제법 말에 멋을 부렸다. 작가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위해 떠나야 하는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런 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나 역시 말에 좀 멋을 부렸다.

-그것이 작가의 운명이겠지요.

그가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가에게 있어 세상은 너무 눈부셔요.

그는 말을 끝내고 수줍은 듯이 웃었다. 그 웃음이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눈부신 계절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날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날 신문사에 다니는 저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오오스마 기자가 석존의 성물을 기사화하던 중에 그에게 연락했던 모양이었다. 그 바람에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오오스마 기자는 소설 거리나 찾으며 이곳까지 와 빌빌거리는 친구가 안타까워 소재 제공을 제대로 한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 친구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가 오오스마 기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한…?

내가 되물었다.

-천추사원 탱화를 그린 금어가 언젠가부터 부처 그림은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다가 암자에 불이 나 타죽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 함께 있던 아들은 스리나가르로 떠났다는데,

-천추사원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한국의 광선사 말사가 맞지요?

-맞습니다.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그럼 그들이 머물던 암자는 천추사원의 별채였겠군요?

인도에 가면 천추사원 금원 조실을 만나 보라던 국장의 말을 떠올리며 내가 물었다.

-천추사원을 짓기 위해 먼저 지은 암자이지요.

-그럼, 거기 그들이 머물렀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했다.

-그런데 아들이 스리나가르로 떠나다니요?

-그곳 조실스님에게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나가르에 있는 그 성물?

-그렇습니다.

-왜 부처를 그리던 금어가 칼을 그리게 되었고 아들은 그 칼을 찾아 떠나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글쎄, 우리도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오오스마 기자가 대답하고 뒤이어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화재의 원인을 찾던 중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들이 발견되었어요.

-화재의 원인요?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암자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아들이…?

내가 너무 놀라자 오오스마 기자가 감당을 못하고 손을 내저었다.

-아니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수사 중이라….

하지만 수사 중인데 아들이 도망치듯 떠났다는 겁니다.

-도망을 쳐요?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이상해요?

-왜 아버지는 칼만 그렸으며 아들은 그 칼을 찾아 떠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군요?

내 물음에 이번에는 심 작가가 고개를 내저었다.

-아직 별 진전은 없습니다만…. 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긴 성물을 찾으러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조실스님에게 그 칼을 찾아 떠난다고 했다는데 그 조실스님이 천추사원 조실스님이 맞지요?

내가 확인하듯 오오스마 기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스님을 만나보면 알 거 아닙니까?

-조실스님을 만나 보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입을 열지 않아요.

나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고 그들의 말을 종합해 보았다. 이곳에 금어가 아들과 함께 와 탱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어가 언젠가부터 부처의 모습은 그리지 않고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다 불이 나 타죽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아버지가 그리던 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떠났다. 왜?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나는 고개를 내젓고 말았다. 무슨 이유에서 아들을 의심하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기자와 작가? 그런 족속들이지 않은가. 기자와 작가가 붙었으니 비약하기 좋아하는 그들이고 보면 무슨 상상을 못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국장의 말과 종정이 꾸었다는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가만, 금어의 아들? 금어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종정 예하가 보았다는 그 아들?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타로 변하더라는 바로 그 아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뉴델리에서 며칠 ①

송 서화가와 내가 오오스마 기자를 만나 하늘의 낙엽이 떨어져 쌓인다는 천추사원을 찾은 것은 다음날이었다. 어딘가 원치 않는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금어가 있었다는 천추사원의 조실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지만,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가 내일 시간이 나니까 함께 가자고 해 그러자고 약속해 버리고 말았다. 길도 설었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

천추사원은 선승(禪僧)으로 유명한 금원 스님이 이곳으로 들어와 지은 절이었다. 서구사회에 불교를 알리기 위해 인도에 세워진 이 절은 종파를 초월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렇기에 초파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종교의 벽을 허물자는 기치 아래 스님과 타 종교인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고는 하였다. 초파일이 되면 기독교인도 절로 올라왔고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스님들이 성당으로 내려갔다.

내가 알고 있는 천추사원에 대한 정보는 그 정도였다. 그것도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 검색기를 동원한 결과였다.

뉴델리에서 한참을 변두리로 빠지다가 다시 번화한 시내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여기저기 소재지를 알리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팻말대로 가다 보니 어느새 사원이 나타났다. 모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계속〉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이체 희망일
□ 5일 □15일 □2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